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교육 수요 조사

김한솔*, 방윤정*, 김미옥*

*충북연구원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e-mail:snj0713@cri.re.kr

A Study on the Education Demand of Certified Business Operators in Chungbuk rural convergence industry vitalization

Han-Sol Kim*, Yun-Jeong Bang*,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hungbuk Rural Convergence Industry Vitalization Support Cente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현재 SNS나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소비시장과 관련한 것이었으며, 작년에 받은 교육 중에서도 이와같은 온라인과 관련한 교육에 만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의 형태도 대면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을 다소 선호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 교육 내용과 그 방법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1차산업은 농산물 생산, 2차산업은 식품 등 가공제품 생산, 3차산업은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등이다. 농촌융복합산업법에 의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차×2차×3차, 1차×2차, 1차×3차의 형태로 구분하여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기준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총 135명(예비인증자 제외)이며, 이를 관리하는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소비환경 등이 급변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의 원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프로그램 설정에 반영하고, 유사한 정책사업자들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022년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13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22년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이며, 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내용

총 응답자는 메일을 회신해준 사업자 67개이며,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2015년도 인증사업자가 27.3%로 가장 많았고 19년도 사업자(18.2%), 20년도 사업자(15.2%), 21년도 사업자(12.1%), 16년도 사업자(9.1%), 17년도 사업자(4.5%), 22년도 사업자(3.0%) 순이었다.

교육 형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비대면 강의가 58.2% 비대면 강의가 41.8%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이 많아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했던 교육을 중심으로 문항을 추가했다. sns마케팅이 18.9%로 가장 많았고, 유통 판매교육이 15.9%, 체험관광 교육 15.4%, 라이브커머스 교육 13.4%,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11.4%, 제조 및 가공교육 10.9%, 음식개발 7.0%, 농산물 관련 인증취득교육 2.5%,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sns마케팅과 유통판매교육,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이전보다 수요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작년도 센터에서 추진한 교육 중 다시 듣고 싶은 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유통판매와 농산물 유통 시장의 변화와 온라인 판매 활용이 각 19.9%로 가장 많았고, 지역농산물과 전통음식을 이용한 6차산업 활성화 전략이 18.4%, 공모사업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13.9%, 농촌관광의 이해, 운영 및 전략 10.4%, 특허상표디자인/인증제도 및 실무와 작업조직의 구성:농업법인의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방법이 각 7.5%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온라인 유통판매 활성화 분야가 가장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4. 시 사 점

설문결과 빠르게 변화한 유통시장과 온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인증사업자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센터의 교육과 지원사업이 시행 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축소되면서 인증사업자들의 교류의 장도 같이 줄어들었다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인증사업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해야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 향후 유관기관과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